

전남, '휴경 농지' 전국 최다...10년새 234% 급증

이 대통령, 농지 강제 매각 검토...'농도' 휴경 구조 관심 고령 농가 비중 높고 농업 노동력 감소...경작 중단 많아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매각명령' 대상을 투기 목적 농지로 명확히 하면서, 실제 농지 이용 실태가 정부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직접 경작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면서 전국 최대 농지 보유 지역인 전남의 농지 휴경 구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통계청 '경지이용면적 및 경지이용률'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남의 경작 가능면적은 26만3349ha로 전국 146만

152ha의 18.0%를 차지한다. 전국 농지의 5분의 1 가까이가 전남에 몰려 있는 셈이다. 규모 면에서 전남은 명실상부한 '농도(農道)'다.

이 가운데 전남의 휴경면적은 2024년 1만2189ha로 집계됐다. 이는 전남 전체 경지의 4.63%에 해당한다. 2014년 3646ha였던 휴경면적은 10년 새 8543ha 증가해 234.3% 늘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증가 흐름은 더욱

분명하다.

전남 휴경면적은 2017년 3344ha에서 2018년 6206ha로 크게 늘었다. 2019년 5998ha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6722ha, 2021년 9962ha, 2022년 9067ha를 거쳐 2023년 1만880ha로 1만ha를 넘어섰고, 2024년에는 1만2189ha까지 확대됐다.

특히 논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전남 논 경작가능면적은 2014년 17만7588ha에서 2024년 15만7530ha로 10년간 2만58ha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논 휴경면적은 1345ha에서 3219ha로 139.3% 증가했다.

논 면적은 줄고 휴경 논은 두 배 이상 늘어난 구조다. 2024년 기준 논 휴경률은 약 2.0% 수준이다.

전남의 휴경 비중은 전국 휴경면적 8만2683ha 가운데 14.7% 수준으로, 경지 보유 비중(18.0%)에 비해 특별히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절대 면적만 놓고 보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휴경지를 안고 있는 지역이다.

전국 최대 농지 지역에서 1만ha가 넘는 토지가 경작에서 이탈해 있다는 것이다.

휴경 확대 배경에는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은 고령 농가 비중이 높고 농업 노동력이 빠르게 줄고 있다고 현실이다.

경지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크지만 이를 관리할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은퇴 연령대 농업인이 늘어나면서 일부 농지가 자연스럽게 휴경 상태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생산조정 정책과 작목 전환 과정의 부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정책이 추진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초기 비용과 판로 확보 문제 등으로 적극적인 전환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일부 논은 다른 작목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경작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향후 정부가 영농계획서 제출 이후 실제

경작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할 경우 전남에서도 개별 농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휴경농지 전부를 투기성 보유로 보는 접근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농업경제 관계자는 "전남의 휴경 확대에는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산업 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영농 의사 없이 보유된 농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가늠하는 것이 정책의 관건이며, 단속과 함께 임대 활성화와 신규 농업인 유입 확대 정책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농지 이용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LG유플러스, MWC서 '에이전틱 AICC' 공개 LG유플러스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6에서 오픈시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차세대 고객 상담 솔루션 '에이전틱(Agentic) AICC'(AI컨택센터) 기술을 공개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만 계정도 털렸다

"20만개 무단 접근 확인...현재까지 2차 피해 없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한국 고객뿐 아니라 대만 고객의 개인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전 직원이 무단 접근한 계정 중 약 20만개가 대만 소재 계정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쿠팡Inc는 이날 보안업체 맨다인트의 포렌식 결과 이런 사실을 새로 확인했다며 정보를 빼낸 전 직원은 이 중 한 개의 계정 데이터만 저장했다고 설명했다.

쿠팡Inc는 이날 홈페이지에 맨다인트,

팔로알토네트웍스 등 글로벌 사이버보안 업체들을 선임해 포괄적인 포렌식 조사를 실시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유출된 계정 중 대만 소재 계정이 포함됐다는 사실은 처음 밝혀진 것이다.

쿠팡Inc는 "대만 소재 계정에서 접근된 데이터 역시 기본적인 연락처 및 주문 정보에 한정된다"며 "그 어떠한 대만 계정 정보도 빼낸 전 직원은 이 중 한 개의 계정 데이터만 저장했다고 설명했다."

쿠팡Inc는 이날 홈페이지에 맨다인트,

그러면서 "모든 주요 조사는 대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맨다인트 등 제3자 포렌식,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고도 민감 정보가 대만을 포함해 그 어느 지역에서도 유출된 바 없다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까지 사고로 인한 데이터 악용 혹은 2차 피해가 확인된 사례는 없으면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즉시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만 디지털부는 이와 관련 쿠팡 주식회사 대만법인으로부터 이번 사건으로 20만4천552명의 대만 고객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주소 및 최근 5년 이내 주문 기록 등이 불법적으로 열람된 사실을 지난 23일 통보받고 이날 행정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시, AI 활용 콘텐츠 융복합 인재 육성

내달 27일까지 GCC사관학교 교육생 100명 모집

4대분야 실무 경험 제공...교육비 무료·실습 수당

광주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융복합 인재 육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생성형 AI 기술을 콘텐츠 제작 과정에 적용한 최신 기술 기반 교과과정이 신설된 'GCC사관학교' 3기 교육생 100명을 다음달 27일까지 모집한다.

GCC사관학교는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문화콘텐츠 전문인재 양성 교육 플랫폼으로, 현장 중심 교육과 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형 콘텐츠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교육 내용은 실감콘텐츠·게임·애니메이션·웹툰 문화콘텐츠 4대 핵심 분야를 특화해 운영하며, 기업 연계 팀프로

젝트 직무실습(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산업 현장의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콘텐츠 제작 과정에 적용한 최신 기술 기반 교과과정(커리큘럼)을 도입해 인공지능(AI) 활용 콘텐츠 융복합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3기 교육생 모집은 GCC사관학교 공식 누리집(https://www.gccaca.kr)을 통해 진행하며, 콘텐츠 분야에 관심 있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전국 청년 미취업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교육생은 서류와 면접심사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4월3일 최종 선발한다.

교육은 오는 4월13일 개강해 약 7개월간 진행되며, 아시아 최고 수준의 VX 스튜디오 시설을 갖춘 광주실감콘텐츠 큐브와 광주영상융복합문화관에서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온라인 기본교육과 기초·심화 과정, 기업연계팀프로젝트 등 총 1000시간의 단계별 실무 교육으로 구성됐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기본·심화 교육기간에는 하루 최대 2만원의 교육수당, 팀프로젝트 기간에는 월 최대 70만원의 실습수당을 지원한다.

GCC사관학교는 또 현직 전문가 특강, 1대1 멘토링, 취업박람회, 우수 교육생 해외연수,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GCC사관학교는 경쟁률이 1기 2.6대 1, 2기 3대 1로 상승세를 보이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귀농·귀촌 가구 10명 중 7명 "생활에 만족"

농식품부, 실태조사...자연환경·가업승계로 귀농

귀농·귀촌 가구 10곳 중 7곳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2025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2020~2024년) 사이 귀농·귀촌 60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귀농은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것을 의미하고, 귀촌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한 것을 뜻한다.

조사 결과 귀농 유형은 농촌 출생 후 도시 생활을 거쳐 연구지 농촌으로 돌아가는 'U형'이 73.0%로 가장 많았다. 반면 귀촌은 도시 출생자가 농촌으로 이동하는 'I형'이 48.7%로 우세했다.

귀농·귀촌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귀농가구의 71.9%와 귀촌가구의 72.0%가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좋다는 응답도 귀농가구 75.5%, 귀촌가구 54.5%로 각각 높았다. 귀농가구의 97.0%, 귀촌가구의 86.3%가 현재 거주 지역에 계속 살 의향

이 있다고 밝혔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33.3%), 가업승계(21.7%),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13.5%) 순이었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에서는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27.3%로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가업승계를 포함해 농업 미래를 보고 귀농한 비중도 꾸준히 50~60% 수준을 유지했다.

소득은 귀농·귀촌 이후 점차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귀농가구 평균 연 소득은 첫째 2534만원에서 5년 차 3300만원으로 30.2% 늘었고, 귀촌가구는 3853만원에서 4215만원으로 9.4% 증가했다.

연합뉴스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